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ol.21 No.2 Serial No.91 _ 2012. 04

로버트 벤투리와 알도 로시 건축에서 도시 경관의 의미와 해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and interpretation of Urban Landscape in Architecture of Robert Venturi and Aldo Rossi

Author
박형진 Park, Hyung-Jin / 정회원, 인하공업전문대학 실내건축과 조교수, 실내건축학박사
이종석 Lee, Jong-Suk / 정회원, 인하공업전문대학 실내건축과 교수
이상연 Lee, Sang-Yeon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박사과정

Abstract
After the modern age, the rapid urbanizationhad a big impact on the then architecture. R. Venturi and A. Rossi are two of the leading architects, developing architecture in cities in the US and Europe respectively. This study shed light on a tangible and intangible meaning and interpretation of urban landscapes through their architectural thoughts and architectures.
The followings are the physical and intangible meaning and interpretation in architectural thoughts and works of those two architects.
Venturi understood that iconological landscapes at the roadside in large citiesare the nature of physical landscapes. To Venturi, the façades of buildings at the roadside are a part of signage such as traffic lights and road signs, and those façades have the meaning of symbolic systems beyond simple physical landscapes. To A. Rossi, types of buildings as physical townscapes are a key role supporting raw data of classification in architecture. And also, those types have significance of the basic data shedding light on the principles and history of cities.
For intangible factors in R. Venturi's architecture, daily routine, function and use, time, a use for a building and others form complex architecture. And also, those factors describe shared values of the same period as the façades of buildings and complex symbols and formative lexicons in metaphorical terms. For A. Rossi's intangible factors, 'collective memory' is buried in inhabitants of the city, and with that, the city is a place for memory to its inhabitants. What is more, cities' monuments have intangible landscapes like 'sustainability', 'permanence' and so on. With lots of events happening throughoutcities, those monuments are the whole images of cities giving the value to the urban buildings that reside in cities.
Finally, R. Venturi's all-encompassing complex architecture concept was extended on a tangible and intangible point of townscapes. It was found that A. Rossi's tangible thought was formed from the whole landscape of historic cities in then Italy as the background of time and place. Also, With types of urban buildings and 'collective memory', A. Rossi drew architectural norms and formats of unchangeable types.

Keywords
로버트 벤투리, 알도 로시, 도시, 경관, 유형학, 복합성
Robert Venturi, Aldo Rossi, City, Landscape, typology, Complexity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근대이전의 건축은 대지로부터 영속적이며 본질적인 장소의 가치를 부여받았으며 동시에 대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었다. 반면에 꼬르뷔지에로 대표되는 근대건축은 필로티를 통해 대지와의 밀접한 관계를 부정하였다. 하지만 근대건축의 필로티는 역설적이게도 장소의 근원을 되묻고 있었다. 또한 근대 건축은 주변 환경을 공기, 빛, 녹지 등의 물리적 요소로 단순화시키는 오류를 범했으며,[1] 대표적인 공간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

1) 꼬르뷔지에는 탑형 도시 배치 계획안에서 건물의 수직화를 통해

는 개방된 평면, 흐르는 공간은 도시공간의 비인간화, 황폐화를 가속화하였다.[2]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은 건축물은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주변 환경과의 소통의 부재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한편 2차 대전을 전후한 시점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복합적이고 다변화된 도시 경관은 건축에 점차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3] 기능에 매몰되어 건축과 주변 환경의 관계를 부정하였던 근대건축과 다르게 이후의 건축가들은 도시 경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 당시 포스트모던 건축을 선도한 로버트 벤투리와 알도 로시는 미국과 유럽이 처해 있던 각기 다른 도시적 상황을 배경으로 건축을 전개하였다. 벤투리는 현대 도시 대로변의 새로운 경관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도시 경관에 대한 과거지향적인 담론을 현재 지향적으로 전환시켰다. 로시는 유럽의 역사적 도시를 집단 구성원의 총체적 기억이 담겨 있으며 이벤트가 전개되는 무대로 보았으며, 유형학적 접근방법에 의한 다소 절대적 방법론을 사용하였다.[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당시의 서로 다른 도시 환경에 대해 건축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방법적 측면에서 차별성을 지니는 두 건축가의 도시 경관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고찰하였다. 콜하스를 비롯한 현대 건축가들이 도시 환경의 복합적인 생성과정, 근본적 특성 등의 도시성과 인문적 요인을 건축 생성의 원리로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대건축 직후에 나타나는 도시 경관의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우선 2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근대 이후의 도시 경관에 대한 관점을 조사하였다. 이 시기에 경관의 의미는 도시화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추출하고 이들 추출 인자와 도시 경관과의 상호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시 경관 요소는 물리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였다.

2장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3장 1절에서는 벤투리와 로시 건축의 경관적 의미와 해석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도시 경관의 물리적 요소는 도시의 가로, 광장, 건축물 등에 대한 시지각적 해석이 주를 이루면서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무형적 요소는 사회, 문화적 체계, 역사, 시간성, 사건 등의 추상적 개념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3장 2절과 3절에서는 두 건축가의 초기 이론과 건축에 나타나는 도시경관의 물리적, 무형적 의미와 해석 특성을 파악하였다.[5]

우선 물리적 측면에서 벤투리의 건축에서 대도시 대로변의 도상학적 풍경을 형성하는 건축물의 파사드의 의미를 고찰하였으며, 로시의 경우 도시를 배경으로 한 유형학적 건축의 토대로서 건축물의 형태가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무형적 측면에서는 벤투리가 주목한 상업도시에서의 일상성, 기능과 용도과 함께 시간성과 관련된 관습적 건축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고찰하였으며, 로시의 경우 도시의 사건과 인간의 행위에 기반한 '집단적 기억', 그리고 역사와 시간의 축적을 통해 형성된 '지속성, 영속성'의 개념과 관련된 건축적 해석을 파악하였다.

2. 근대 이후 도시 경관의 의미

근대 이후 도시 경관과 건축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관의 기본적인 의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관은 '특색 있는 풍경 형태를 가진 일정한 지역'을 의미하며 시지각적인 감각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관은 건축과 주변 환경의 관계를 의미하는 맥락(Context)과 관련된 것으로 시지각적 연속성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경관은 자연, 도시 경관 등의 유형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경험, 지식 등의 정신적인 것, 역사적 영향성의 사회, 문화적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다.[6]

근대 이후의 경관은 산업 혁명 무렵 시작된 도시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급속도로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경관은 무형적 측면을 포함한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이며 총체적인 도시적 환경을 의미하게 되었다.[7]

도심의 높은 인구 밀도의 해소, 도심 혼잡의 완화, 냄새와 소음으로부터의 해방, 쾌적한 공원의 조성 등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르꼬르뷔지에, 이관석 역, 건축을 향하여, 동녘, 2002, pp.72-81

2) 슐츠에 의하면 근대의 개방 평면, 흐르는 공간은 도시적 환경에 적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연환경에 위치한 건출물과 다르게 도시공간에는 사적, 공적 영역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데, 흐르는 공간은 내외부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기 때문이다. C. N. Schulz, 장소의 혼, 태림문화사, 2001, p.225

3) 짐멜은 도시화를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차별화된 양상으로 보지 않았다. 농촌의 도시화는 시간의 진행에 따른 근대화의 필연적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대 이후의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도시적 환경의 영향을 벗어나기 힘들다. M. Savage 외 1인, 김왕배·박세훈 공역, 자본주의 도시와 근대성, 한울, 2002, pp.125-148 / 그 결과 포스트모던 건축은 현상학적 측면에서 볼 때 도시를 문화적 산물로 보며, 장소성 이론과 깊은 관련을 지닌다. Kete Nesbitt, 건축이론 1965-1995(1), 최학종 역, 시공문화사, 2006, p.52

4) 길성호, 현대건축 사고론, 시공문화사, 2001, pp.101-102, p.113

5) 두 건축가는 근대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의 폭넓은 시기에 활동하였는데, 근대 직후의 시대적 상황에 나타난 건축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초기 이론과 작품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6) 선행연구들은 경관의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를 통해 경관을 해석하였다. Brent C. Brolin, 박두진 외 2인 공역, 맥락적 건축, 세진사, 1996/ 진정, 현대 미국건축의 Contextualism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83.8/ 박혜경, 입지 유형에 따른 맥락적 형태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3.12

근대 사회의 도시화는 지역적 구분이라기보다는 전세계적으로 진행되었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시 경관은 근대 이후에 나타난 경관의 본질적, 포괄적,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근대 이후의 도시학자, 건축가들은 이러한 도시 경관을 물리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도시 경관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를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3장에서는 벤투리와 로시의 건축에 나타난 도시 경관의 의미와 해석 특성을 파악하였다.

2.1. 도시경관 구성요소의 물리적 측면

현대건축에 나타나는 장소의 의미는 건축과 주변 환경의 관계를 바라보는 건축가의 관점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의 하나로서 주변 환경과 건축을 유기적인 상호의존적 관계로 해석하는 토포스적 장소[8] 개념에서 건축과 주변 경관은 분절되어 있으며, 동시에 연속된 공간을 형성하여 전체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9] 라이트(F. L. Wright)와 헤링(H. Hering) 등은 자연과 건축을 전체와 부분의 상호의존적 관계로 해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는 부분으로 나누기 힘들며 부분은 전체를 통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유기성이 건축공간에 대입됨으로써 건축과 경관은 연속된 공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유사한 관점에서 건축과 경관을 시지각적 관점에서 형상(figure)과 배경(background)의 관계로 이해하는 실존적 해석은 근대건축 이후 나타난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다. 가시적, 물리적 관점에서 경관으로서의 장소는 지표면, 지형기복, 식생, 성곽, 도시, 마을 등을 통해 그 특성이 나타난다. 슐츠는 그의 장소론에서 일면으로는 시지각적 관점에서 자연경관과 건축물 외관의 형상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다. 부연하면 그는 게슈탈트 이론을 토대로 전체의 장소를 자연장소와 인공장소로 구분하고 이들을 배경-형상의 관계로 보고 있다.[10]

그런데 짐멜을 비롯한 도시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화로 대표되는 근대 사회의 서구화는 이미 1990년대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현상이다. 전근대사회의 도시사회화가 시간적 차이에 의해 생성되는 필연적 현상이기 때문에 근대 사회에서 메트로폴리스의 영향은 농촌 배후지를 포함한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도시적 상황에서 배경과 형상의 게슈탈트적 관점을 적용하여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들을 시지각적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도시경관의 물리적 측면에 대한 시지각적 관점을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우선 브롤린(Brent C. Brolin)은 맥락적 건축(Architecture in Context)에서 신구건축물들이 시지각적으로 통합된 도시 경관을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부 포스트모던 건축가들이 근대 건축가들만큼이나 주변 환경의 맥락에 무관심하며 역사적 의미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였다.[11] 부연하면 건축의 맥락은 주변 환경과의 시지각적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형태적 맥락'과 인간과 건축 간의 문화적, 역사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맥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많은 포스트모던 건축가들이 후자에 편중되어 있다는 의미이다.[12]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브롤린은 새로운 양식의 신축건물이 시각적인 참조를 통해 구건물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13]

구체적으로 그는 신축 건물이 주변 건물들과 조화되어야 하며, 가로선과의 관계, 인접건물들과의 간격, 매스구성, 높이, 파사드의 형상, 창문과 문의 크기와 비례 등, 재료, 색채, 스케일 등의 건축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언급한 건축의 형태적 요소들은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다. 그의 관점에서 도시 경관의 맥락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건축적 요소의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건축어휘를 통해 기존에 존재하는 도시 경관의 순수한 시각적 문제와 신축 건물의 연계를 실행하는 것이다.[14]

이전과 확연히 차별화된 20세기의 근대도시경관에 주

---

7) 도시 경관과 건축 간의 맥락적 관계에서 보았을 때 도시 경관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하는 문제와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소를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8) 그리스어인 토포스(topos)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에 바탕하며, 신들이 머무는 자연경관을 의미한다. 현대적 공간론의 개념에서 토포스적 장소의 근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간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에 의하면 장소는 경계를 갖는 내포적, 유한적 개념이며, 따라서 작은 장소는 보다 큰 장소에 속하게 됨을 의미한다. Van de Ven, 건축공간론, 정진원 외 공역, 기문당, 1987, pp.30-36

9) 이외에도 인간의 행위와 사건을 중시하는 로쿠스적 장소, 마지막으로 토포스적 개념과 로쿠스적 개념이 혼합된 장소가 있다. 안우진, 건축의 장소성을 체험하는 공간시퀀스 구조에 관한 연구, 경상대 박론, 2003, p.12, pp,25-39

10) 슐츠는 자연경관을 성격에 따라 낭만적, 우주적, 고전적, 복합적 경관 등으로 구분하였다. 자연 경관은 인공적 장소에 확장된 배경의 역할을 함으로써 정주지에 실존적 의미를 제공한다. C. N. Schulz, 앞의 책, pp.50-62

11) 그는 로버트 스턴(Robert Stern)을 인용하여 탈근대주의자들이 맥락주의적 경향, 암시주의적 경향, 장식주의적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많은 포스트모던 건축가들이 장소의 정신에 관련된 형태적 맥락을 고려하기 보다는 시대의 정신에 관련된 사회적 맥락 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Brent C. Brolin, 앞의 책, pp.28-31/ 박혜경, 앞의 논문, pp.198-200

12) 포스트모더니즘은 건축의 의미생성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도시와 삶의 조건을 개선하려던 모더니즘의 긍정적인 측면을 도외시하였다. 그 결과 역사적 상징, 의미 등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형태나 디자인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3) Brent C. Brolin, 위의 책, p.31

14) 위의 책, p.243, pp.258-259

목한 렐프(E. Relph)는 도시를 구성하는 도시구조, 도시가로, 도시공간 등의 도시 건축 환경의 형태에 관심을 기울였다.[15] 이는 그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건축물을 관찰하는 관점을 지니며, 건물은 주변의 공간과 구조, 가로의 형태와 시각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근대 도시 경관을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시각적 환경'으로 정의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전문가의 관점보다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시지각적 경험을 중요시하였다. 부연하면 일상에서의 걷기, 운전하기 등을 통해 눈에 보이는 사실들에 대한 관찰과 기록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총체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그는 건축, 기술혁신, 도시계획, 사회의 발달 등의 네 가지 요인을 20세기 후반의 도시 경관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통적 인자로 보았는데,[16] 구체적으로 각 시대의 건축적 특성을 통해 당시 도시경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례로 국제주의로 대표되는 근대건축의 미학적 원리가 20세기 후반 도시경관을 지배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근대 경관의 다양성과 풍부함이 말살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통해 포스트모던 건축이 참조한 도시 내부의 기존 조직을 재생하려는 시도, 역사적 유산 보존에 대한 관심의 증대, 도시설계와 커뮤니티계획에 있어 새로운 접근 등을 통해 포스트모던 건축과 도시 경관의 관계를 파악하였다.[17]

또한 그는 현대 도시민들의 생활필수품인 자동차에서 바라본 시지각적 관점을 토대로 가로체계, 이정표, 사인 등 대로변의 물리적 요소들이 형성하는 도상학적 풍경의 상징체계에 주목하였다. 그중에서도 건축물의 외부적 형상을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물리적 요소로 보았다. 건축물의 외부입면은 대로변의 도상학적 체계의 중요한 요인이면서 동시에 건축물의 내용과 도시 경관을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는 모더니즘 시대의 대도시 대로변을 형성하는 혼란스러운 물리적 체계를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18] 과거 지향적이었던 이전의 경관 개념을 현재 지향적으로 변경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궁극적으로 도시 경관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이외에도 린치(K. Linch)는 '도시의 이미지(The Image of the City)'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일상적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19] 그가 말하는 '장소 가독성(place legibility)'은 '장소에 대한 읽기 쉬움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차적인 감각으로서 시지각적 이미지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또한 건축가이자 도시계획가인 쿨렌(G. Cullen)은 저서 '도시경관(The Concise Townscape)'에서 도시를 관찰자의 이동에 따른 시각적 측면, 관찰자의 위치감에 따른 내부공간을 중심으로 한 장소적 측면, 도시환경 구성인자인 색채, 질감, 규모, 특성, 개성 및 유일성 등에 관한 내용적 측면 등의 세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이동과 정지에 의한 시각적인 측면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였다.[20] 이와 같이 도시의 일상적 경관의 물리적 요소를 시지각을 통해 분석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점이었으며, 경관의 물리적 요소로서 건축물의 형상적 측면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표 1> 선행연구에 나타난 도시경관의 물리적 요소

연구자	물리적 요소
브롤린	가로선과의 관계, 인접건물들과의 간격, 매스구성, 높이, 파사드의 형상, 창문과 문의 크기와 비례, 재료, 색채, 스케일 등의 건축적 요소
렐프	도시 건축 환경의 형태(도시구조, 도시가로, 도시공간)
벤투리	가로체계, 이정표, 사인, 건축물 파사드

2.2. 도시경관 구성요소의 무형적 측면

다비(H. C. Darby)는 경관을 사람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의 조화와 통합, 자연과 인문이 결합된 결과이며, 다양한 힘들의 순간적인 균형이자 평형의 상태라고 하였다.[21] 이는 현대 지리학에서의 경관이 단지 시지각적인 측면에서의 자연적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복잡, 다변화된 도시사회의 인문적 경관을 포함한 것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근대 이전에는 기술적, 사회적 변화가 매우 천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관의 기본적 의미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현대의 도시적 상황에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 다양한 무형적 요인이 건축의 배경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근대 이후 많은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준 슐츠(C. N. Schultz)는 실존적 의미에서 건축적 공간은 주변 장소의 혼을 토대로 형성되는 것이며, 이는 땅과 하늘을 토대로 형성되는 주제로서 자연 경관과 인간의 경험, 사회, 문화적 가치관 등의 변주로서 인문적 경관이 복합적으로 현시된다고 하였다.[22] 루커만(F. Lukermann) 역시 장소는

15) 렐프(Edward Relph)는 1900년대 이후 등장한 마천루, 교통신호, 컨벤션센터, 고속도로, 플라스틱 사인, 보행자전용구역, 패스트푸드 체인점, 쇼핑몰 등에 관심을 갖고 도시경관에 접근하고 있다. Edward Relph, 근대도시경관, 김동국 역, 태림문화사, 1999, pp.15-19

16) 위의 책, pp.15-19

17) 위의 책, pp.249-278

18) Kenneth Frampton, 현대건축사(2), 정영철·윤재희 공역, 세진사, 1990, pp.534-535

19) 그가 말하는 도시에서 가독성이 있는 장소는 랜드마크, 길 등에 의해 환경의 이미지가 그룹화 되어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며,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Kevin Linch, 도시환경디자인, 한영호 외 공역, 광문각, 2003, pp.222-223 그림 참조

20) 특히, 그는 시각적인 측면이 다른 두 가지의 측면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보았다. Gordon Cullen, 도시경관, 박기조 역, 태림문화사, 1994 참조

21) 전종한 외 3인, 인문지리학의 시선, 논형, 2005, p.274

22) 슐츠에 의하면 실존적 경관은 자연적 경관에 인간의 구체적인 목적을 반영한 복합적인 실체인 것이다. 특히, 시카고와 같은 현대 대도시에서는 이국적인 의미(foreign)가 지방적인 장소의 혼(genius)을 능가하며 인간의 문화적 요인이 우세한 영향을 끼친다

자연과 인간 문화의 총체적인 것이며, 인간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의미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항상 변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23] 특히 현대의 도시 경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누적된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의 명확한 개념으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경관은 포괄적 의미에서 장소의 배경이 되며, 건축물은 그 장소가 처한 특정한 고유성을 반영함으로써 토포스와 로쿠스[24]의 융합적인 장소 개념이 나타난다. 특히 루커만은 장소 개념을 6가지 요소로 분류하였는데, 장소는 일정한 영역 안에서, 시간의 경과를 통해,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지니는 것이라고 하였다.[25] 장소를 형성하는 요인으로서 시간, 인간, 환경적 측면은 실존적 공간을 형성하는 경관의 포괄적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로쿠스적 장소 개념을 토대로 인간의 행위와 사건, 시간적 요소 등의 무형적 측면에서의 경관적 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26]

연구 대상인 로시(A. Rossi)는 도시를 이해하는 수단으로 건축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건축은 시간과 더불어 축적된 모든 도시의 건설물을 의미한다. 포괄적 개념의 건축물로서 '도시적 형성물 또는 도시적 인공물'은 도시의 성격을 지니는 물질적인 건축 축조물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역사, 지리, 구조, 로쿠스, 도시 유형, 평면, 계획, 발전과정, 영속성, 기념물의 가치, 도시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사고 등의 무형의 것들을 포함한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특히 도시의 '기념물'은 가시화된 시간으로서의 도시의 장소성을 함축하는 대상이다.

또한 그는 물리적 요소로서 건축물의 형태를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를 집단 구성원의 총체적 기억이 담겨있는 장소로 봄으로써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잠재적 성격을 담는 장소로 해석하였다. 도시적 환경과 구성원 간에 형성되는 '집단적 기억'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장소의 애착에 관련된 것으로 인간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도시 구조물에는 수많은 시간들이 동시에 공존하는 집합체이며, 역사적 사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는 도시에는 구성원들의 '집단적 기억'이 응집하게 된다.

렐프는 20세기 인구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장소로서 도시를 주목하였는데, 그는 당시 유행하였던 국제주의에 의한 건축, 도시계획 등을 통한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시지각적 관점뿐만 아니라 동시에 근대와 차별화된 도시화에 의한 사회적 변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도시의 사회적 특성을 20세기 후반 전세계 도시들 간의 역사적, 형태적 유사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그가 도시 경관의 이면에 존재하는 시각적인 것 이상의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7] 요컨대 그의 관점에서 건축물의 외관이 도시 경관의 중요한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임은 분명하지만, 물리적 특성만으로 모든 장소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28]

그는 장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물리적 환경과 함께 인간의 활동, 의미를 내세웠는데, 이들 세 가지 요소의 변증법적 연계는 장소의 정체성을 구조화하는 기본적 관계이다.[29] 인간의 장소 경험과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는 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장소의 정체성이 장소간의 차이나 동일성을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차이 속에서 동일성을 확인하는 훨씬 근본적인 행위라고 함으로써 그 집단적인 성격을 중요시 하였다. 개별적으로 경험되는 장소의 정체성은 구성원들의 상호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 결합됨으로써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그는 인간의 활동, 경험이 반드시 끊임없는 변화나 계속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의 장소 경험의 일부라고 하였다. 도시 경관은 지나온 과거의 역사와 사건의 현재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투사하는 현재적 표현인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축적된 의식, 관습, 신화가 구성원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강화시킨다고 보았다. 이것은 루커만이 장소가 역사적 문화적 체계에 의해 끊임없이 생성되는 것으로 본 것과 유사한 논리이다.

<표 2> 선행연구에 나타난 도시경관의 무형적 요소

연구자	무형적 요소
슐츠	인간의 지각, 인간의 쉐마, 사회문화적 가치
루커만	역사적 문화적 체계, 인간의 행위
로시	도시의 역사, 로쿠스, 영속성(지속성), 사건과 사고, 인간의 경험과 시간에 누적된 집단적 기억
렐프	인간의 활동과 장소 경험, 공통의 기억, 시간의 흐름, 문화적 요소 등

고 하였다. C. N. Schulz, 앞의 책, p.211

23) F. Lukermann, Geography as a formal intellectual discipline and the way in which it contributes to human knowledge, Canadian Geographer, 1964, pp.167-172 -E. Relph,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외 공역, 논형, 2005, pp.28-30에서 재인용

24) 프램톤(K. Framton)은 '비판적 지역주의'를 통해 현상학적 건축을 기반으로 하면서 인간의 경험적 측면을 융합시킨 장소 개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한 로쿠스적 장소 개념은 건축에서 인간의 행위와 사건을 중요시한 것으로 구조주의 건축, 루이스 칸의 '방'의 개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신합리주의 건축 등을 통해 나타난다.

25) 루커만의 장소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현실세계의 구체적인 장소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장소가 지니는 환경적 아이덴티티 개념을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F. Lukermann, 위의 책, pp.167-172

26) 루커만의 포괄적인 장소 개념은 슐츠의 관점과 유사하다. 슐츠는 공간의 유형을 6단계로 구분하면서 추상적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 유형의 복합성을 설명하였다. 여기서 추상적 공간은 인간이 만든 논리적 공간 개념으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추상적 공간에 사회적, 문화적 가치, 인간의 쉐마, 주변 환경과의 관계, 인간의 지각이 관여하면서 장소가 발전하게 된다. C. N. Schulz, 김광현 역, 실존·공간·건축, 태림문화사, 2002, pp.8-15

27) E. Relph, 앞의 책, 1999, pp.15-20

28) E. Relph, 위의 책, 2005, pp.79-81

29) 렐프는 메를로 퐁티가 행위를 물리적, 활동적, 심리적 요소로 구분한 것을 토대로 장소 이론을 발전시킨다. 위의 책, pp.107-115

3. 벤투리와 로시의 도시 경관의 해석

3.1. 분석틀의 설정

선행 연구에서는 도시의 가로체계, 광장, 도시공간과 구조 등의 포괄적인 도시의 체계로부터 개개 건축물의 외형, 파사드 등의 건축적 요소 등을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한 물리적 요소로 보고 있다. 도시 구성원들이 실생활을 통해 접하는 일차적 감각으로서 시지각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요컨대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지역적 특성, 가로, 기물 등과 함께 건축물의 형태적 이미지를 중요한 물리적 요소로 보는 것은 당시의 건축가들과 도시계획가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던 관점이다.<표 1>

본 연구의 대상인 벤투리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형태적 표현을 통해 건축의 복합적, 대립적 의미가 외연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건축의 핵심 내용이다. 그는 복합적, 대립적 건축의 개념을 토대로 건축물의 높이, 양식, 규모, 리듬, 텍스쳐 등의 물리적 도시 경관의 시지각적 측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건축물의 파사드는 도시경관의 도상학적 풍경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이면서 건축과 주변 경관의 접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에 로시는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배경으로 역사적인 도시를 설정하였다. 그 안에 축적된 시간성,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능을 버리고 추상적인 방법론을 내세웠다. 기능적인 도구 대신 건축물의 형태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적인 창조성을 초월하는 객관성을 획득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 경관의 물리적 요소로서 건축물의 외형에 대한 벤투리와 로시의 경관 해석을 고찰하였다.<표 3>

다음으로 선행연구자들은 사회, 문화적 체계, 도시의 역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과 사고, 인간의 활동, 공통된 장소 경험 등을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무형적 요소로 보았다. 이러한 도시 경관의 인문적, 무형적 요소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해 공통된 특성으로 묶기가 쉽지 않다.[30] 뿐만 아니라 이들은 유형적 요소로서 도시의 체계, 기념물, 건축물 등과 결합하여 로쿠스적 장소를 형성하기 때문에 무형적 측면만으로 추출하기 쉽지 않은 특성을 지닌다.<표 2>

벤투리와 로시 역시 도시 경관의 물리적 특성과 함께 무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벤투리는 미국 현대도시의 상업적 환경에 내재한 일상성에 주목하였으며, 동시대인들의 공유된 사고를 바탕으로 내적 기능과 용도를 건축 내외부에 적용하였다. 또한 관습적이고 진부한 건축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동시대인들과의 공유를 통한 시간, 역사의 의미를 재생하는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로시의 유형학에 의해 이미지화 된 건축 형태는 도시를 배경으로 한 시간의 흐름에 장소를 제공하며, 거주민의 삶 속에 총체적 기억으로 존재한다.[31] 그는 유럽 역사적 도시의 고유한 특성을 토대로 현대도시와 과거의 역사적 불연속성, 시각적 혼란성을 지적하면서 도시문맥속의 건축에 대한 새로운 논리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벤투리와 로시의 건축에 나타나는 인간의 행위, 사건, 사고의 측면과 함께 시간적 의미와 관련한 무형적 경관요소의 해석을 파악하였다.<표 3>

<표 3> 연구 분석틀의 설정

	물리적 측면	무형적 측면	
		인간의 행위, 사건과 관련된 측면	시간의 경과, 흐름적 측면
벤투리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건축물의 파사드에 대한 시지각적 측면	일상성 용도와 기능	관습적 건축
로시	유형적 건축의 배경으로서 건축물의 형태가 지니는 의미	집단적 기억	지속성/영속성

3.2. 도시 경관의 물리적 요소의 의미와 해석

(1) 벤투리 건축에서 물리적 경관의 상징체계와 건축물

벤투리는 대도시 대로변의 도상학적 풍경을 물리적 경관의 본질로 보았다. 그에 의하면 현대 도시에는 시지각적인 측면에서 이전과 차별화된 새로운 규칙과 일정한 체계가 형성된다. 공항에서 다운타운에 이르는 대로변에 나타나는 여러 요소들을 도로와 가로등 등의 명확한 시각적 질서를 이루는 유형과 다양한 건물군들과 함께 얽혀 있는 복잡한 시각적 질서를 이루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32] 공항으로부터 라스베가스에 이르는 대로변은 전자의 연속적이며 일정한 리듬과 후자의 불규칙적인 리듬의 대위법적 관계를 통해 시각적 질서와 체계를 유지한다.<그림 1>

<그림 1> 대로변의 질서와 체계

이러한 관점은 도시생활에서의 필수품인 자동차에서 바라본 시지각적 관찰에서 비롯된 것이다.[33] 이전의 도보 중심의 생활 패턴에서 자동차 중심의 관점으로 이동하면 중심가(Main Street)와 대로변(Strip) 사이에는 스케일적 측면에서의 차이가 발생한다. 라스베가스 중심가는 상점에서 상점으로 도보

30) 2장 본문의 루커만의 장소 이론 및 각주 26)의 슐츠의 공간 유형 참조

31) 로시에게 건축물의 기능은 가변적인 허구에 불과한 것일 뿐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남겨지는 건축적 형태는 도시민들의 기억에 새겨지며, 이를 통해 도시의 장소성이 형성된다. 김종헌, 이탈리아어권의 신합리주의 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7.1, p.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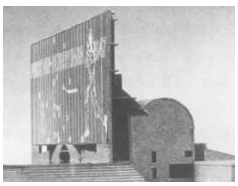
32) Robert Venturi, 라스베가스의 교훈, 김정신 외 1인 공역, 태림문화사, 1983, pp.19-20

33) 도시적 환경에서 건물의 공간이 더 이상 건축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고는 이미 1971년에 발표한 '대중문화로부터의 교훈(Learning from Pop)'에서 나타난다. 도시 근교는 자동차들의 등장으로 인해 공간을 가로질러 발생하는 소통을 가능케하는 상징적, 시간적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K. Michael Hays, 1968년 이후의 건축이론, 봉일범 역, 시공문화사, 2005, p.88

로 이동 가능하며, 밀집된 상점의 쇼윈도우, 진열된 상품 등이 동선 상에서의 중요한 요소이다. 반면에 대로변에서는 자동차의 이동을 고려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유소, 슈퍼마켓, 신호체계 등이 위치함으로써 스케일의 확장이 일어난다. 대로변을 질주하는 자동차에서의 시지각적 관찰을 토대로 대로변의 질서와 체계가 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로변의 도상학적 요소로서 라스베가스의 건축물 외부 입면의 이미지는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이는 이전의 건축과는 다른 차원의 개념을 필요로 한다.[34] 카지노, 대형 쇼핑몰 등을 나타내는 네온사인, 간판 등은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상징물이다. 토마스 콜이 '건축가의 꿈'을 통해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건축의 형식과 상징에 부가하여 커뮤니케이션적 요소, 저급한 문화적 요소를 수용하였듯이 그는 형식과 전통보다는 도상학적인 수법을 중요시 하였다. 부연하면 이러한 요소들은 근대건축가들의 휴먼스케일적 공간 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동시에 이전에 하찮게 여겨졌던 상업적 건축물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의 관점에서 대로변의 건물들은 공간상에 위치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상징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부연하면 자동차로부터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 건축의 내용보다 전면에 놓인 사인, 간판이 더 유용하다. 전면 파사드의 사인은 상징을 통해 관찰자와 관계를 맺는다. 상징이 공간을 지배하는 것이다.[35] 그 결과 사인 뒤편에 놓인 건물의 내용은 부차적인 것이 된다. 그가 고속도로 상에서 사인이 없을 때 장소성 조차 없다고 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상징과 은유를 통한 의사-입면을 지니는 장식된 쉐드(Decorated Shed)가 현대에 적합한 건축물이며, 건물 전체가 상징화하여 공간, 구조, 평면이 일체화 되는 근대적 건축물(Duck)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그림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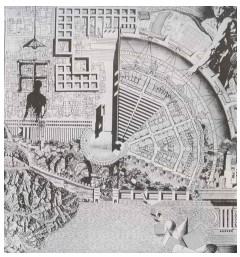


<그림 2> 장식된 쉐드의 커뮤니케이션 역할

요컨대 벤투리는 새롭게 등장한 대도시 대로변의 신호체계, 사인, 간판들을 물리적 경관의 핵심으로 보았으며, 건축물의 내용물보다는 건물과 대로변의 상징적 체계와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대로변 건축물의 상징적 입면은 주요한 경관 요소이다. 여기에는 가로변의 상업적 건축의 출현과 혼성적인 매체의 등장으로 이전과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가 내재해 있다. 즉, 근대건축에서 강조하였던 공간과 분절된 매스 등은 현대의 변화된 환경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37] 그에게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의 대로변을 지나며 보이는 도상학적 풍경들이야말로 현대도시의 물리적 경관의 본질이며,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다.

(2) 로시건축의 유추적 해석과 건축물의 형태

로시 건축에 나타난 건축물 형태의 경관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와 건축의 관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로시가 '도시의 건축' 서문에서 밝혔듯이 도시는 자체의 원동력을 지닌 생명체와 같은 존재이다. 도시는 시간과 더불어 자신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자신의 의식과 기억을 습득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최초의 동기들은 영속하지만, 동시에 도시는 자신의 고유한 발전동기들을 결정하고 변경한다.[38] 이는 처음에 도시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발생된 것이었으나, 지형학과 건축물의 축조로 인하여 역사적인 변형을 거치면서 발전한다는 의미이다. 로시의 관점에서 이탈리아의 도시와 건축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상생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39]



<그림 3> 유추의 프로세스

그런데 로시는 도시를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하나의 단편을 추출하여 의미를 확장시키는 유추의 과정[40]을 통해 건축을 전개하였다.<그림 3> 여기서 도시의 물리적 측면을 형성하는 '도시적 형성물'[41]의 형태는 유형 분류의 원자료를 제공하는

34) 벤투리는 꼬르뷔제를 인용하여 "건축은 매스가 빛을 받음으로써 장엄하고 장대한 플레이가 더 이상 아니다." 라고 함으로써 근대건축의 매스, 빛 등의 개념을 부인하였다. Robert Venturi, 앞의 책, 1983, p.113 / 뿐만 아니라 그는 퐁피두 센터와 같은 산업사회의 이상을 보여주는 네오모더니즘 건축 역시 소통의 컨텍스트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부정하고 있다. Robert Venturi and Denise Scott Brown, 기호와 시스템으로 읽는 건축, 유혜경 역, 애플트리테일즈, 2009, p.23, pp.38-39

35) 그가 건축에 도입하려는 대중문화의 풍경은 현재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스콧 브라운은 대중문화, 바로 그곳이 건축이 머물러야할 장소로 보았으며, 근대 건축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징적이며 소통적인 측면에 대한 데이터의 원천이라고 하였다. K. Michael Hays, 위의 책, pp.85-90

36) Robert Venturi, 앞의 책, 1983, pp.85-100

37) 벤투리는 라스베가스를 예로 커뮤니케이션적 요소가 공간을 지배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전의 근대건축에서 중요시했던 인간적 스케일의 광장, 보행자로 보다는 현대 대도시의 대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판, 사인 등의 도상학적 요소를 바탕으로 현시대의 환경에 적합한 가치를 찾고자 한 것이다. 위의 책, pp.6-9, pp.148-149

38) Aldo Rossi, 도시의 건축, 오경근 역, 동녘, 2003, p.34

39) Aldo Rossi, L'architettura della citta', cittastudi, 1966, p.14 - 김의용, 이탈리아 신합리주의 건축의 설계방법론에 관한 연구, 건축학회논문집, 2003.12, p.148에서 재인용

40) 그의 관점에서 건축과 도시가 불연속적인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유추가 가능하다. 도시 전체를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여 그 속에서 하나의 단편을 선택하여 의미를 확장시켜 적용하였다. Anthony Vidler, The Third Typology, Opposition Reader, Princeton Press, 1988, p.16

41) 도시적 형성물은 로시의 도시와 건축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 용어이다. 본문의 건축적 형성물은 다소 축소된 범위의 일반 건축물을 의미한다.

보고이다. 그는 도시를 사회적 의미로부터 분리시켜 물리적 형태로 축약시켰으며, 건축가는 분류된 유형을 재구성하고 변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소 직관적이며, 순수한 방법론을 통해 건축은 자율성을 획득하며, 도시의 구성 요소 중에서 구축성을 가진 건축물 자체가 그 구성의 원리와 역사를 밝힐 수 있는 분석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다.[42]

관련하여 '도시적 형성물'로서 도시의 건축적 기념물은 사회적 기억의 저장고이며 그 자체로서 도시이다. 도시적 형성물의 형태는 강한 연속성을 지니는 이탈리아 도시의 실체이며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로시가 건축물의 형태를 도시 경관의 물리적 요소의 주요한 축으로 여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는 아테네, 로마, 파리 등 유럽의 역사적 도시의 대형 팔라쪼, 복합용도의 건물, 인구 밀집 지역 등의 '건축적 형성물'들이 원래의 기능과 용도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도시에서 중심적 역할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통해 주요한 도시적 형성물들의 역사적 연속성이 도시민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건축적 형성물의 형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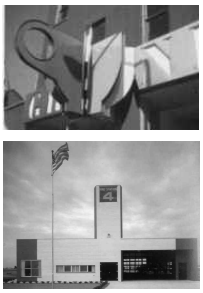
반면에 로시는 건축물의 형태가 도시적 형성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복합적이고 조정된 형태여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는 그가 방법론적으로 사회적 내용으로부터 분리하여 도시 형성물의 물리적 형태를 분석하였지만, 그것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건과 행위, 시간 등을 함께 고려야한다는 의미이다.[44] 그가 도시를 인공물로 이루어진 예술작품으로 보는 것도 도시를 구성하는 도시적 형성물이 물질 이상의 무엇, 즉 도시의 특정한 장소와 사건 등과 결합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로시에게 도시의 물리적 경관으로서 도시의 형태, 건축물의 형태를 서술하는 것은 그 안에 누적된 시간, 역사적 사건 등의 경험적 자료 전체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45]

3.3. 도시 경관의 무형적 요소의 의미와 해석

(1) 벤투리의 무형적 경관요소의 복합적 의미와 해석

벤투리는 기본적으로 관찰자의 지각을 중심으로 여러 차원의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는 복합적이면서도 모호한 건축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일견 단순, 명쾌해 보이는 근대건축을 비판한 것도 그것이 단선적 사고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건축에 나타나는 복합적 특성들은 건축 주변의 다양한 제 요소들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는 건축물의 용도, 기능 등의 내적 요소뿐만 아니라 건축이 형성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무형적 요인들을 건축물 내외부에 복합적 해석과 상징을 통해 표현하였다.[46]

우선 벤투리는 현대 도시의 동시대인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를 건축의 주요한 본질로 보았다. 도시민들의 일상적 행위와 관련된 평범한 요소들은 동시대인들의 현실에 대한 가치 공유를 토대로 형성된 무형적 경관요소이다. 건축 외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주변의 일상적, 대중적 요소들은 상징적 수법을 통해 내부 공간과 외부 입면에 표현되었다. 필라델피아의 그랜즈 레스토랑의 가구, 조명기구, 설비 등의 실내장식 요소들과 외부 파사드의 대담한 스케일의 커피잔 형상의 사인은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로 광고용 상징주의와 평범한 전통의 결합을 의미한다. 또한 길드 하우스, 소방서 등의 외부에 쓰인 TV안테나, 사인으로서의 텍스트, 국기게양대, 벽돌 등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소를 재해석한 것이다.<그림 4>[47]



<그림 4> 일상적 요소의 건축적 해석

이들 요소들은 스케일이나 맥락이 변형되는 비일상적인 방법을 통해 주변을 환기시키며 동시대인들에게 공감을 불러오는 역할을 한다.[48] 그는 일상적 요소들을 익숙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건축물 외부 입면과 실내에 사용함으로써 공감을 얻고 있으며, 이는 주변의 물리적 경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팝 아트가 대중적인 상업광고, 만화 등의 이미지를 통해 당시의 엘리트주의적 고급문화를 붕괴하였듯이 이전의 건축에서 평범하고 무의미했던 주변 경관의 무형적 요소들은 그의 건축에서 비일상적인 의미를 도출해낸다.

---

42) 로시는 무의미하며 분명하지 않은 조형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으로부터 유형학을 옹호하였다. Peter Arnell and Ted Bickford, Aldo Rossi, Buildings and Projects, Rizzoli, 1985, p.75

43) Aldo Rossi, 앞의 책, 2003, pp.165-172

44) 일반적으로 건축의 유형학은 건축 형태를 분류화나 추상화에 의해 유형을 탐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의 역사적 공동 기억의 산물과 이러한 공동 의식의 표현물로 정의된다. I. M. Elkaddi, Typological Production in Architecture, U. Penn. Dissertation, 1983, p.72 - 길성호, 앞의 책, p.95에서 재인용

45) 예로서 최근에 지어진 파도바의 재판소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은 도시적 형성물로서 인식될만한 가치를 지니지 못하며 단지 건축의 형태적 측면, 양식만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형태만을 고려하는 도시형태학은 일시적인 과정에 대한 고찰일 수밖에 없으며, 도시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Aldo Rossi, 위의 책, pp.53~60

46) 벤투리 건축의 무형적 경관 요소는 아래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박형진 외 1인, 벤투리의 초기 이론과 작품에 나타난 맥락적 사고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9.10

47) Robert Venturi and Denise Scott Brown, 앞의 책, 2009, pp.56-86/ Robert Venturi, 앞의 책, 2004, pp.237-241/ Robert Venturi, 앞의 책, 1983, p.137

48) 벤투리는 현시대 건축의 본질적 부분이 형태나 공간에 있지 않고 대중들이 추구하는 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부분을 충족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Robert Venturi, 앞의 책, 1983, pp.150-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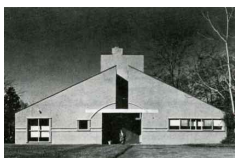
또한 벤투리가 도시 물리적 체계의 일부로 주목한 대로변 건축물 파사드의 간판, 사인은 기능과 용도를 외연하며 도시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공시적 체계의 일부이다. 여기서 건축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능과 용도는 동시대인들의 사고와 행위를 바탕으로 형성되므로 공시적 측면에서 무형적 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49] 그에게 대도시 대로변의 간판과 야경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건축물의 내용보다 중요하며 본질적 의미를 지닌다.[50] 이전의 건축에서 내적 동인에 머물렀던 기능과 용도는 도시의 상징 체계의 일부가 되었으며, 또한 대도시 대로변의 물리적 경관에도 영향을 끼치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용도나 기능 등의 무형적 요인이 대로변 상업 건축물 파사드의 간판, 사인 등에 직접적으로 외연되었다면 보다 복합적인 방법을 통해 건축물의 파사드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체스넛 힐 주택 파사드는 과거의 익숙한 팔라디오풍 건축에서 차용하였는데, 엄격한 대칭성은 내부의 기능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절충의 과정을 겪는다.[51] 전면의 외관은 전체적으로 대칭이지만 중심부의 계단과 벽난로, 측면부의 방과 부엌의 기능적 차이가 입면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기능, 용도 등의 내적 요인은 뒤에서 고찰할 관습적 방법을 통해 나타난 이미지, 기억, 시간의 흐름 등의 무형적 경관 요인 함께 복합적으로 건축물에 영향을 끼치며, 이 과정은 접점인 건축물의 파사드에서 수용되었다.<그림 6>[52]

다음으로 벤투리는 이전 시대부터 축적된 과거의 경험, 이미지, 기억 등 시간적 개념과 관련된 경관의 무형적 요인을 건축물에 적용하였다. 대표적으로 그는 필라델피아의 벤자민 프랭클린 광장 계획에서 이전에 존재하던 기존 건물의 형상을 철골 구조 형상으로 표현함으로써 광장 지하의 박물관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와 기억을 재생하였다. 특히 '관습적 방법'[53]을 통해 경관의 무형적 의미를 건축물에 적용하였는데, 관습적 요소는 일정 지역의 동시대인들에게 익숙해진 건축 조형 어휘를 지칭하며, 포괄적인 관점에서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고 평범한 다양한 건축 주변의 제요소들을 포함한다. 부연하면 그는 근대건축의 혁신적인 건축 어휘를 지양하고 익숙한 전통적인 조형어휘를 통해 시간성, 기억 등의 새로운 의미와 문맥을 창조하였다.<그림 5>

<그림 5> 프랭클린 광장

체스넛 힐의 입면의 조형 요소들은 전혀 독창적이거나 진보적인 요소들이 아니며 오히려 과거의 건축에서 채용한 진부한 것들이다. 외관의 하얀색 몰딩, 사각형 창문 등은 전통적 건축요소를 차용한 것들이며, 재료와 창의 형태 등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하고 익숙함을 바탕으로 이들 요소들은 주변 지역의 시간의 흐름, 역사적 의미 등을 반영하며, 관습을 따르되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건물에 적용됨으로써 주변 경관에 영향을 끼친다.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들을 새롭게 조합하여 역사적 의미, 시간의 흐름 등의 복합적인 경관의 의미를 표현하였던 것이다.<그림 6>[54]


<그림 6> 체스넛힐의 주택

인간이 만든 예술품에는 기본적으로 질서가 필요하며, 훌륭한 작품에는 반드시 질서가 존재한다. 같은 이유로 건축의 전체성, 일관성 등을 위해서는 일정한 질서가 필요하다. 그는 과거로부터 사용된 건축적 어휘들이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부연하면 건축적 관습은 건물의 요소와 구성과 관련하여 제작, 형태, 용법이 지극히 일반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그의 건축에 나타난 관습적 요소들은 건축적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대인들과의 공유된 시각, 총체적인 문화적 기반을 토대로 형성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므로 공시적, 통시적 측면에서 무형적 경관의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

(2) 로시 건축에서 무형적 경관요소에 의한 장소 형성

고찰하였듯이 로시가 건축 방법론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유형 또는 유형학적 건축은 단순한 형태적, 물리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콜훈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성이라는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유형의 개념을 해석하였는

49) 건축의 기능과 용도(function and use)는 건축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장소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건축의 무형적 맥락요소이다. 진정, 앞의 논문, p.38 / 또한 그의 건축에 나타나는 복합성은 형태와 기능의 일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단순한 회화품의 표현주의, 다중성의 형태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기능과 프로그램 상의 요구에서 비롯된 다양성과 전체성을 지향하는 건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Kete Nesbitt, 앞의 책, pp.110-115

50) 그는 그리스와 로마의 사원들, 비잔틴, 르네상스 건축물 등의 역사적 선례뿐만 아니라 최근의 현대건축 사례를 통해 건축에서 기호, 상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동시에 저급한 문화와 고급 문화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Robert Venturi, 위의 책, 1983, p.127, Robert Venturi and Denise Scott Brown, 앞의 책, 2009, pp.38-55

51) 이와 유사하게 H. H. 리처드슨의 헨리 애덤스 주택에서 외부 파사드에 나타나는 규칙성과 대칭성은 광장에 면하는 건축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할 주변 도시적 환경의 무형적인 기념비성, 공공성을 외연하고 있다. 동시에 창문간의 위치에는 미묘한 변화가 반영되어 주택으로서의 내부적 요구를 긴밀히 반영, 표현하고 있다. Robert Venturi, 앞의 책, 2004, pp.108-109

52) 위의 책, p.185

53) 근대건축에서 보듯이 인간이 만든 질서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관습을 따르되, 그것에 변화를 주며, 그것을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이다. 벤투리에게는 독창적인 것을 창조하는 것만큼이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선택의 과정에 관습적 요소가 관여하게 된다. 위의 책, pp.89-101

54) 역사적 건축과 주변의 일상적인 관습적 요소들을 차용하는 것은 그의 1990년대 이후의 건축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데, 여기에 부가하여 건축물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재해 있는 주관적 쉐마를 바탕으로 사회에 수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55] 이처럼 유형적 건축은 보다 근본적이며, 내재적인 동인으로서 사회전체의 시공간적인 쉐마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로시 건축의 유형학적 개념 역시 필연적으로 도시의 무형적 경관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유형은 공동체의 역사와 집단적인 공동 기억의 산물이며, 과거의 건축과 밀접한 관계를 토대로 형성된다. '집단적 기억'은 도시의 사건과 인간의 행위를 통해 형성되며, '지속성·영속성'은 도시의 역사와 시간의 축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은 로시 건축을 통해 나타나는 유럽 역사적 도시의 무형적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한 두 축으로 볼 수 있다.

한 도시의 구성원들은 물질적, 정신적 측면에서 정착지를 지배하며 역으로 정착지에 지배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한 집단은 자신들이 건설한 영역 속에 갇히게 되며, 외부 환경과 집단의 안정된 관계는 집단의 근본적인 이념을 형성한다.[56] 로시는 도시 환경과 구성원들의 이러한 관계를 '집단적 기억'으로 명명하였으며, 도시는 구성원들의 기억의 장소(로쿠스)이다. 도시적 형성물들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구성원들의 사건과 행위를 고스란히 간직하며 도시의 변화 속에서도 형태와 함께 지속된 도시민들의 '집단적 기억'에 흡수되어 도시의 이미지가 되고, 건축이 되고, 도시의 경관이 되는 것이다.[57]

로시의 '집단적 기억'의 개념은 도시를 그 자신을 기반으로 스스로 성장하고 그 모든 요소들이 '도시의 정신'을 세우기 위해 집결하는 하나의 종합체로 본 샤보(G. Chabot)[58]의 이론을 따른 것이다. 이를 토대로 로시는 도시적 형성물이 예술작품과 매우 유사하여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 질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종합체적 성격을 지니는 집단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도시의 구조적 맥락에서 도시 형성물의 형태가 물리적 근간을 형성한다면 도시민에 형성된 집단적 기억은 도시의 역사가 되고 도시를 구별하고 결정하는 특성이 되며 기억이 될 수 있다.

이탈리아 역사적 도시의 시간의 경과와 함께 형성된 집단적 기억은 보다 근본적이며, 불변의 건축적 규범, 구성방식으로서 유형적 건축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는 집단적 기억을 통해 형성된 유형을 다음과 같이 축약하였다. "유형은 건축의 본질에 매우 근접해 있는 개념이다. 즉, 유형은 그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건축과 도시의 원칙으로서 언제나 '감성과 이성'과 함께 한 것이다."[59] 그는 유형학을 토대로 총체적 도시에서 대표적인 단편을 찾아내어 의미를 확장시켰는데 이 과정을 통해 건물과 도시의 스케일에서 발생하는 시공간적 차이를 연결할 수 있었다.[60]

구체적으로 로시는 집합적 기억이 잠재해 있는 도시로부터 유형분류의 원자료를 제공받아 단편을 추출하여 의미를 확장, 해석하였다. 갈라라테제 집합주거는 롬바르디(Lombardy)지방의 보편적인 주택의 중정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집합주거를 떠받치는 다양한 단면의 기둥들, 2층 건물 외벽의 창과 발코니, 편복도식 내부 회랑은 도시민들의 잠재적인 집합적 기억 속의 도시 가로, 주택단지 등의 다의적인 도시 이미지들을 반영한 것이다.<그림 7>[61] 도시 이미지를 구성하는 단편이 지니는 무형적 경관으로서 집합적 기억이 건축물에 스며드는 과정을 통해 집합주거는 도시가 되었고 역으로 도시는 주택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요컨대 로시에게 무형적 경관 요소로서 집단적 기억은 유형학적 방법을 통해 형태 형성 과정에서 불변의 것을 가능하게 하며, 형태적, 역사적 연속성을 지님으로써 도시의 장소를 형성하는 원동력이다.[62]

<그림 7> 갈라라테제 집합주거

다음으로 대표적인 도시적 형성물로서 기념물이 지니는 '지속성·영속성'은 시간의 경과, 역사의 흐름 등에 따른 건축적 변화와 관계를 맺는다는 측면에서 무형적 경관의 주요한 요소이다. 로시가 지속성, 영속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도시적 형성물의 존재 이유를 그 형성물의 연속성 안에서 설명하는 마르셀 포에트의 관점에서 비롯되었다.[63] 포에트에 의하면 지속성은 도시의 도로선과 평면을 통해 증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물리적 징표인 기념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55) Alan Colquhoun, Typology and Design Method, R. Gutman, People and Building,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69, pp.395-397

56) 로시는 알바슈의 저서 '집단 기억'에 나타난 한 집단과 환경의 관계를 확대해석하여 도시와 도시민의 관계, 그 속에 형성되는 장소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Maurice Halwachs, La memoire collectiv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aris, 1950, p.132 - Aldo Rosi, 앞의 책, 2003, p.260에서 재인용

57) Aldo Rosi, 위의 책, pp.80-85, p.261

58) 샤보의 '삶만이 삶을 설명한다.'는 비유는 도시가 도시 자신에 의해 설명된다면 기능에 따라 도시를 분류하는 것으로는 도시를 설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는 도시를 하나의 종합체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능을 도시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 중의 하나로 사용하였다. 위의 책, pp.80-81, p.101

59) 위의 책, p.63

60) Micha Bandini, Topology as a Form of Convention, AAfile 6, The Architectural Association, 1985.5, p.77

61) Peter Arnell and Ted Bickford, 앞의 책, p.75

62) 유형적 방법론에 기반한 건축물은 도시건축물의 집합적인 성격, 스타일, 기능, 기술들에 의한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영속적인 성격을 지닌다. 위의 책, p.4

63) 포에트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과거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이러한 지식을 도시의 지도를 연구함으로써 얻었다. '지속성은 평면의 발생체'라는 포에트의 개념은 평면의 발생체를 이해함으로써 도시공간의 형성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이 가능하다는 라브당의 분석에 영향을 끼쳤다. Aldo Rossi, 앞의 책, 2003, pp.73-74

와 과거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기념물의 영속성은 로시에게 언제나 도시의 수많은 사건, 경험과 함께 해온 시간의 축적이며, 존재 이유이다.[64]

주지하듯이 로시는 도시를 집단적 기억의 장소로 보았는데, 도시의 장소성은 특히 '기념물'의 물리적 표현을 통해 실체가 드러난다. 그에게 지속성을 지닌 도시적 형성물은 기념물과 동일한 의미이며, 그 기념물은 도시에서 물리적 형태를 통해 지속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를 구성하는 기념물의 의의, 역사, 예술, 존재성, 기억 등을 통해 지속성, 영속성의 무형적 경관이 형성된다.[65] 따라서 로시에게 기념물은 도시의 장소성을 함축하는 대상이었으며, 도시의 영속성, 지속성을 가능케 하는 대표성을 지니는 연구 대상이었다.

도시의 기념물은 도시의 존재적 의미, 사건과 경험 등의 총체적인 영속성, 지속성에 기반하여 시간의 흐름을 통해 형태로 귀결되어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기념물을 통해 도시의 장소성이 함축될 수 있다면 역으로 기념물의 의미와 존재 이유, 양식과 역사 안에서 도시의 장소와 성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8> 이러한 시간상의 초월성, 영원성에 대한 사고는 로시의 건축을 기능적인 의무로부터 추상적인 방향으로 이끈 원동력이며, 유형학적 건축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66] 부연하면 그는 도시적 형성물의 구조를 존속시키는 것은 그 안에 스며있는 시간, 기억을 포함한 형태적 가치의 총체로 보았으며,[67] 유형의 개념은 도구적인 것을 초월하는 이미지로서 아방가르드적 창조성을 초월하는 객관성을 획득하였다.

<그림 8> 기념물로서 재판소

예컨대 도시적 형성물을 대표하는 기념물로서 포로 로마노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로마 내부에 존재하는 특별한 형성물이며, 도시 전체를 집약하는 도시의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68] 포로 로마노에는 도시민들의 일상이 수천 년에 걸쳐 녹아들어 도시의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다. 로시의 관점에서 포로 로마노는 도시 내부에 존재하는 특별한 형성물이며, 도시 전체를 집약하는 도시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포로 로마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총체적인 도시적 형성물로 그리고 로마 자체의 지속성, 영속성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64) 위의 책, p.229
65) 위의 책, p.90
66) Rafael Moneo, 앞의 책, pp.129~130
67) Aldo Rossi, 위의 책, pp.227~235
68) 포로 로마노는 애당초 공동묘지로 계획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부족들의 새로운 형태의 생활 중심지가 되었다. 또한 기원전 4세기경 이곳은 시장 기능을 멈추고 로마제국의 만남의 장소이자 로마의 중심지라는 근본적인 성격을 유지한 채 진정한 의미의 광장이 되었다. 위의 책, pp.235~238, p.246

포로 로마노가 도시민들의 경험과 시간의 축적을 통해 특별한 장소가 된 것처럼 로시의 물 위를 떠다니는 수상 극장 프로젝트는 도시민들 기억 속의 기념물로서 롱게나의 돔[69]을 연상시키는 건축적 형태의 초월성뿐만 아니라 극장에서 일어나는 행위와 사건의 연속성을 통해 장소적 특성을 획득한다. 이 극장에서 로시의 관심은 형태적인 것보다는 이동하면서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공연, 이벤트), 행위 그리고 장소성 회복에 있었다.[70] 다시 말해서 16세기 이래로 베네치아풍의 이동식 극장에서 치룬 이벤트와 도시민들의 기억이 수상 극장에서 재현됨으로써 지속성과 영속성의 무형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었다.<그림 9> 로시에게 도시의 역사적 기념물이 지니는 지속성, 영속성은 도시의 장소를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이었으며, 건축 생성과정에서 회복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그림 9> 수상 극장

<표 4> 최종 분석표

	물리적 측면	무형적 측면	
		인간의 행위, 사건과 관련된 측면	시간의 경과, 흐름적 측면
벤투리	건축물 파사드를 비롯한 대로변의 도상학적 요소들을 상징적 의미체계로 재해석함	동시대인들의 일상, 사고, 행위 등을 비일상적인 방법으로 파사드와 내외부 공간에 재해석함	과거의 경험, 이미지, 기억 등의 시간적 측면을 익숙한 건축적 조형어휘로 해석함
로시	하나의 단편으로서 건축물의 형태는 역사적 연속성의 결과이며, 유추의 과정을 통해 재해석됨	개개 구성원들에게 기억된 도시의 사건과 인간의 행위는 유형학을 토대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재해석됨	도시의 역사와 시간 등은 건축물의 형태에 축적, 결합함으로써 총체적인 도시적 형성물로 해석됨

4. 결론

본 연구는 근대 이후 도시 경관의 물리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에 대한 벤투리와 로시의 건축적 의미와 해석을 고찰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4>

첫째, 벤투리와 로시는 도시 경관의 주요한 물리적 요소로서 건축물의 형태를 주목하였다. 벤투리는 건축물 외부 파사드를 대도시 대로변의 도상학적 요소의 일부로 해석하여 적용하였으며, 로시는 유형학을 토대로 건축물의 형태를 도시 건축의 본질로 보고 유추의 과정을 통해 건축에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벤투리에게 대도시 대로변의 새롭게 등장한 물리적 요소로서 이정표, 신호등, 사인 등이 행하는 커뮤니케이션적 역할이 건축의 기능이나 내용물보다 훨

69) Rafael Moneo, 위의 책, p.165
70) 수상 극장은 상상과 비이성적 세계가 시작하는 장소로 기억되며, 실제적인 건축의 이미지는 사라진다. Peter Arnell and Ted Bickford, 앞의 책, p.220

씬 중요한 것이었다. 그는 대로변 도상학적 요소들의 일부로서 건축물의 파사드를 전체 도시 경관의 의사전달체계의 일부로 파악함으로써 이전의 경관 해석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로시는 역사적으로 축적된 유럽의 도시적 형성물의 형태를 바탕으로 유형학적 방법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도시적 형성물로서 건축물의 형태를 총체적 경관을 형성하는 하나의 축으로 해석하였다. 그에게 물리적 경관 요소로서 구축성을 지닌 건축물의 형태는 창조의 원천이자 보고의 의미를 지닌다.

둘째, 벤투리와 로시 건축에 나타난 도시 경관의 무형적 측면의 의미와 건축적 해석 특성은 다음과 같다.

벤투리는 대도시의 현재적 모습을 토대로 이전 건축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동시대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인식을 토대로 한 일상성, 용도와 기능, 시간과 관계된 관습적 어휘 등을 무형적 경관요인으로 보고 건축에 적용하였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요소들은 익숙하지 않은 방법, 조합을 통해 비일상적인 의미를 나타냄으로써 주변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무형적 경관 요소로서 건축물의 기능, 용도 등은 건축 설계 과정에서의 실제적인 동인(動因)의 역할을 하였으며, 이전부터 축적된 시간의 흐름, 기억 등은 건축적 관습을 통해 파사드와 내외부공간에 복합적으로 표현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로시에게 도시는 물질 이상의 그 무엇이 존재하는 곳으로 도시민들의 집단적 기억과 시간, 역사의 흐름 등의 무형적 경관 요인이 관여한 총체적인 대상이었다. 즉, 도시적 형성물의 형태와 더불어 오랜 역사와 시간의 경과에 흡수된 시민들의 '집단적 기억'이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공동체에 형성된 '집단적 기억'은 무형적 경관의 한 축을 형성하며, 유형학적 건축 개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형은 도시의 형성과정에 축적된 본질적인 부분이며, 도시적 형성물(기념물)의 '지속성, 영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었다. 그에게 도시적 형성물의 지속성, 영속성은 도시 영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 시간의 흐름과 함께 한 건축물의 형태에 녹아들어 존재하였다.

셋째, 무형적 경관 요소로서 일상성, 역사적 사건·사고, 시간성, 기억 등은 물리적 요소인 건축적 형태와 결합하여 벤투리와 로시 건축의 본질적 부분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투리 건축의 복합성, 모호함 등의 특성은 건축물의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도시 경관의 유, 무형적 의미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특히, 내, 외부의 접점으로서 건축물의 파사드는 내부적 기능과 용도, 관습 등의 상징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도시경관에서 커뮤니케이션적 영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로시는 역사적 도시의 도시적 형성물의 형태와 시간, 사건 등의 무형적 요소가 결합된 장소의 개념을 내세웠다. 이탈리아의 역사적 도시의 현장과 도시민들의 가슴속에 스며있는 '집단적 기억'과 '지속성, 영속성'은 무형적 경관 요소로서 로시 건축의 원동력이며, 건축물의 형태와 결합함으로써 장소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가 도시와 도시적 형성물을 사회적 의미로부터 분리시켜 물리적 형태로 분석한 것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Arnell, Peter and Bickford, Ted, Aldo Rossi, Buildings and Projects, Rizzoli, 1985
2. Bandini, Micha, Topology as a Form of Convention, AAfile 6, The Architectural Association, 1985
3. Colquhoun, Alan, Typology and Design Method, R. Gutman, People and Building,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69
4. Vidler, Anthony, The Third Typology, Opposition Reader, Princeton Press, 1988
5. Hays, K. Michael, 1968년 이후의 건축이론, 봉일범 역, 시공문화사, 2005
6. 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7. Moneo, Rafael, 이영범 외 3인 공역, 8인의 현대건축가, 공간사, 2008
8. Norberg-Schulz, Christian. 장소의 혼, 민경호 외 3인 역, 태림문화사, 2001
9. Nesbitt, Kete, 건축이론 1965-1995(1), 최학종 역, 시공문화사, 2006
10. Rossi, Aldo, 알도 로시 과학적 자서전, 곽기표 역, 소오건축, 2006
11. Rossi, Aldo, 도시의 건축, 오경근 역, 동녘, 2003
12. Savage, Mike 외 1인, 자본주의 도시와 근대성, 김왕배·박세훈 공역, 한울, 2002
13. Venturi, Robert, 건축의 복합성과 대립성, 임창복 역, 동녘, 2004
14. Venturi, Robert, 라스베가스의 교훈, 김정신 외 1인 공역, 태림문화사, 1983
15. Venturi, Robert and Brown, Denise Scott, 기호와 시스템으로 읽는 건축, 유혜경 역, 애플트리테일즈, 2009
16. 전종한 외 3인, 인문지리학의 시선, 논형, 2005
17. 길성호, 현대건축 사고론, 시공문화사, 2001
18. 김종헌, 이탈리아어권의 신합리주의 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7.1
19. 김의용, 이탈리아 신합리주의 건축의 설계방법론에 관한 연구, 건축학회논문집, 2006.5
20. 박혜경, 입지 유형에 따른 맥락적 형태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3.12
21. 조승구, 도시 형태와 현대 건축의 관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8.1
22. 진정, 현대 미국건축의 Contextualism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83.8

[논문접수 : 2011. 10. 30]
[1차 심사 : 2011. 11. 21]
[2차 심사 : 2012. 02. 22]
[게재확정 : 2012. 04. 06]